
바울로와 역사의 예수 I

1. 머리말

18세기말경부터 서구 신학계에서 바울로와 예수의 관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. 그것은 복음서에 반영된 예수상과 바울로의 편지들의 내용을 비교해볼 때 여러 면에서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.

이 논쟁은 바울로가 ‘예수의 종교’를 조직, 발전시켰다는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, 곧 바울로는 예수와 상관없는 새로운 신학을 수립했다는 주장 사이에서 벌어졌다. 두 번째 입장에 섰던 브레데(W. Wrede)는 바울로가 ‘제2의 그리스도교 설립자’라고 못박고, 그는 예수의 단순한 가르침을 유다·라삌적인 복잡한 신학으로 둔갑시켰으며, 역사의 존재인 예수를 도외시하고 그를 신화적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. 이 논쟁은 마침내 예수와 바울로,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극단론으로까지 번져나갔다.

사실상 성서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은 복음서와 바울로서신의 차이를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. 그런데 그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인가? 아니면 발전된 것인가? 만약 발전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

둘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가, 아니면 결정적 변화가 있는가를 묻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. 또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며,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.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해도 바울로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수난을 자기 신학의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바울로의 글을 분석해봄으로써 바울로의 사상에서 예수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.

2. 예수에 대한 바울로의 말

바울로는 “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도 그 모든 것을 오물같이 여겼습니다”(필립 3, 8b)라고 하는데, 그는 그 이유로 “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”(필립 3, 8a)라고 한다. 그러니 그가 지금까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셈이다. 아니, 그는 분명히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‘오물처럼’ 내버렸다는 것이다.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. 그것은 바로 “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”이라는 말이다. 이것은 역사의 예수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인가? 아니면 예배의 대상이 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인가?

여기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바울로에게는 역사의 예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. 그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. 그가 어디서 났는지, 누구에게서 났는지,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말하지 않는다. 마르코복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